

트리샤브라운(Trisha Brown)의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1

김미희

문화집단 기호 연구원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1) 포스트모더니즘 개념 및 특성
 - 2) 트리샤 브라운의 무용 활동 전개과정
 - 3)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작품 분석
3. 결론

¹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 발제한 내용입니다.

요약문

예술은 정치적인 분위기 및 사회의 제도에 따라 시대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서도 20세기 초기의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반역사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로 특히 미국의 무용계에서는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실험의식이 강하고 급진적이며, 전위적 예술성향의 포스트 모던댄스가 생겨났다. 작업의 의도나 표현에 있어 새로운 움직임의 표현을 발견하고 즉흥적인 요소와 실험적 시도의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안무특성을 탐구하여 오늘날까지 현대무용 안무 형식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중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을 선택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포스트모던 댄스를 이끈 트리샤 브라운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사회적 흐름을 무용작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움직임 자체의 표현과 순수한 움직임을 위한 무용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현대무용가들은 신체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체표현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움직임으로 인해 어떠한 감정표현과 개인의 감성이 배제되어 있다. 일상적인 행동을 무용으로 재창조하고 탁월한 공간사용과 실험적인 안무형태를 형성시켜 무용을 가치 있는 예술로서 각인시켰다.

따라서 브라운의 작품분석을 통해 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날 현대무용의 움직임과 안무형태에 본질적인 무용예술의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댄스, 트리샤 브라운, 이합 핫산

1. 서론

예술은 정치적인 분위기 및 사회의 제도에 따라 시대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서도 20세기 초기의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반역사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인간은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빠른 현대화로 인해 19세기 말의 시대적인 사조인 모더니즘에 대해 실망하여 그 틀에 벗어나고자 하였다.

무용은 발레의 클래식에서 모던으로,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도, 표현방식에 대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작업의 의도나 표현에 있어 새로운 움직임의 표현을 발견하고 즉흥적인 요소와 실험적 시도의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을 받은 현대무용을 포스트 모던댄스라 할 수 있으며 모던댄스와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힘들다. 이유는 포스트모던 댄스는 1960년대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포스트모던 댄스는 뉴욕의 저드슨 댄스 시어터(Judson Dance Theater)를 중심으로 이본느 레이너(Yvonne Rainer), 데이빗 고든(David Gordon), 메레디스 몽크(Meredith Monk), 트리샤 브라운 등의 안무가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들은 표현하고자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연성과 즉흥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표현하고자하는 대상과 표현방법을 동일하게 하기위해 시간의 개념을 도입했다. 움직임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그쳤고 동작 자체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을 받쳐주는 수단으로 여겼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반응, 접촉, 우연히 발생하는 해프닝,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 동작에 의해서 이 시대의 포스트모던 댄스 특징이다.

본 논문은 저드슨 댄스 시어터 초기멤버였고 그 이후 미국 현대무용 선두에서 포스트모던을 대표하는 안무가로서 활동해온 트리샤 브라운의 네

² 손소영,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의 작품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쪽.

작품의 분석으로 그녀의 안무 특성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운은 실험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즉흥무용의 외형적 측면이 어떻게 사회적 의미의 함축을 설명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안했으며, 당시의 반문화적 경향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무용의 순수한 본질을 찾기 위해 현대무용에서 이루어졌던 테크닉적인 움직임의 제거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에서 예측불가능한 공간사용, 제스처 및 즉흥과 놀이 등을 동작에 포함시켜 비 무용적인 것을 무용동작으로 재탄생하는 작업을 하였다. 트리샤 브라운은 포스트모던댄스에서 태생된 대표 안무가로 미국 현대무용사에 새로운 안무형식을 형성시켰다.

본 연구는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으로 연구한다. 이 작품을 탐색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적 예술사상이 그녀의 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트리샤 브라운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안무특성을 탐구하여 오늘날까지 현대무용 안무 형식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론 바탕으로 서술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작품연구 기반으로 문헌적 자료와 영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문헌 고찰에서는 트리샤 브라운의 창작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논문, 학회지,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선정한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의 영상 자료를 통하여 트리샤 브라운의 안무에서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을 분석 하였다. 셋째, 브라운의 네 작품 안에서 포스트모던 댄스 안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넷 애드헤드(Janet Adshead)의 분석 방법 (1단계: 무용구성요소, 2단계: 무용의 형태, 3단계: 무용의 해석, 4단계: 무용의 평가) 4단계 중 1단계 무용구성요소, 2단계 무용의 형태를 그리고 3단계 무용 해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용의 평가로는 작품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넷 애드헤드 4단계 무용의 평가 대신 이합 핫산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활용하여 브라운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탐구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 개념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산업사회의 대표하는 시대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용어로서 후기 산업사회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에 벗어나면서 풍족한 물질문명을 이루었지만 인권투쟁,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정신세계는 어느 때 보다 위태롭고 험난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사상들은 기존의 가치나 도덕의 효력을 잃게 만들었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사회에 일어났다³. 이 시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1960년대에는 뉴욕의 예술가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 이합 핫산, 수잔 손탁(Susan Sontag) 같은 비평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유럽의 이론가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문학개념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하고 총체적인 맥락에서 연구 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 ‘모더니즘의 반대하여’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더니즘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양식이나 개념들이 과거와 단절되지 않고 그 전에 것을 받아들여 반응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도 역시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시도하나 근거는 모더니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의 사회, 경제, 예술의 중요한 변화에 맞춰 획기적으로 일어났으며 모더니즘의 전통적인 특성을 없애고 절충 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접근방식으로 창조성을 나타내기 위해 1960년대부터 문화현상의 특징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이다⁴.

³ 김다정,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존 듀이의 경험 예술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48쪽.

⁴ 최신영,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표현양식을 활용한 미술 교육방법 연구: 패스티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18쪽.

1987년 이합 핫산이 발행한 「포스트 모던한 전망 속의 다원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여덟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불합리성(Indeterminacy)은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 유평가가 아닌 주류를 이루는 사조의 견해, 예술전반에 걸친 개방성, 해체, 반항, 다원성, 이단의 정신등과 같은 불확정적인 이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단편화(Fragmentation)는 사회적, 인식론적 종합을 거부하고 총체성을 오명으로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확신, 차이, 변증의 시대가 되면서 몽타주, 콜라주 등의 기법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셋째, 탈 경전화(Decanonization)는 서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 체계인 진리, 주제, 초월적 이성을 거부하고 규범과 경전에 대한 도전으로 엘리트주의, 남성우월주의를 부정한다. 대중의 참여와 비평을 유도하고 대중문화, 여성문화, 제3의 예술세계 등에 관심을 보이며 대중예술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넷째, 재현 불가능성(Unrepresentable)은 장르가 무너지고 혼합되는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예술의 한계를 추구하며 소비를 즐기고 예술교육의 양식을 문제시 하며 반리얼리즘의 성격을 지닌다.

다섯째, 혼성모방(Hybridization)으로 이 특성은 전통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완한다. 지속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가 혼합되고 현재 속에서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장시켜 나간다.

여섯째, 대중주의(Populism)는 고급문화와 모더니즘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며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메이드(ready-made)개념은 예술의 기존 개념을 깬 것으로 주변의 흔한 대상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시켰고 팝 아티스트는 혼성 모방의 기법을 연출하였다.

일곱째, 행위(Performance)와 참여(Participation)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직접행위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행위로 연출되기를 기대한다. 예술은 행위를 통하여 시간, 공간,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완성된다.

여덟째, 보편내재성(Immanence)의 경향은 율동,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호의존, 상호침투 등의 다양한 개념들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개념들

속에서 가치관의 세계화, 보편화 경향을 찾아 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초기 모더니즘과 후기 모더니즘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모더니즘의 비판과 새로운 모더니즘의 추구로서 역사화 된 개념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전대의 모더니즘의 결합을 거부하면서 유럽 아방가르드 예술을 살리려 했으며 역사적으로 유럽의 아방가르드는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면서 독자적인 미국적 형식을 보다 문화적으로 개념을 나타내려고 하였다⁵. 모더니즘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음악, 건축, 패션 등 모든 예술의 작품들이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소로만 축소되어졌다.

포스트모던댄스(Post Modern Dance)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5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시기로부터 포스트모던댄스의 양상들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어떠한 보편적이거나 타당한 역사적 해석과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던댄스에 대한 연구는 앤 헬프린(Anna Halprin)과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등으로 시작되었고 사조의 변화 양식을 더욱 세분화하고 가속화시켰다. 머스 커닝햄 외에도 많은 안무가들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이본 레이너와 스티븐 팩스톤(Steve Paxton),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루신다 차일즈(Lucinda Childs), 메레디스 몽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무용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활동은 초창기 그들의 실험의 장소로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에 있는 저드슨 교회(Judson Church)를 발견하였으며 그곳에서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댄스의 시도를 시작한다. 이후 결성된 그룹은 저드슨 댄스 시어터 라고 알려져 있다.

저드슨 그룹은 커닝햄에 의해 무용언어에 대한 도전을 체계화하였고 그들의 실험은 우연성, 수학적 공식과 게임구조, 기습과 같은 다양한 실험으로 모던댄스와는 다른 무용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포스트모던댄스의 형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었다. 이들의 무용 활동은 우연, 순간적 즉흥, 신체간의 접촉, 공연에 있어서의 시간 사용 등을 이용해 만든 무용

⁵ 정진숙, 「포스트 모던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tmodern dance」,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쪽.

들이 있다⁶.

이러한 1960년대 포스트모던댄스 안무가들의 활동은 모던댄스 안무가들이 이루었던 안무자와 무용수 위주였던 무용에서 벗어나므로써 관객과 무용수와의 거리를 한층 좁혀 나갔다.

저드슨 극장의 실험과 도전정신, 그리고 그룹으로부터 분화된 여러 흐름은 무용의 목적, 소재, 동기, 구조, 양식 등의 모든 영역을 확장시키고 포스트모던댄스 미학의 기반을 다졌다. 지금까지의 포스트모던댄스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는 기존의 모던댄스의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와 전통이나 신념에 있어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방식의 무용 만들기 작업들과 반복적인 시간 구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무용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트리샤 브라운은 1936년 11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트리샤 브라운은 고교시절 무용교사 마리온 헤이이지(Marion Hegeage)에게 발레와 재즈댄스로 마르고 가냘픈 체격을 발전시켰다. 그 후 그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밀스 대학(Mills College)에서 현대무용을 배워갔으며 호세 리몽(Jose Limon), 루이스 호스트(Louis Horst), 머스 커닝햄 등의 무용가들과 교류하였다. 밀스 대학을 졸업 후, 그녀는 리드 대학(Reed College)과 뉴욕 대학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그녀의 춤을 가르치며 자신의 무용 활동을 전개 하였다. 트리샤 브라운은 2년 동안 무용을 지도하였지만 전통적인 교수 방법에서 탈피하여 즉흥무용법으로 전환 후 자기 자신만의 무용 표현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⁷.

이 시기에 트리샤 브라운은 즉흥성을 비롯한 자신의 안무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개인의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움직임 즉흥으로 쉽고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전환하여 구조화시킨 첫 작품인 <Trillium>(1962)

⁶ 정은심, 「1960년대 초기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의 안무실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7쪽.

⁷ 박기범 「저드슨 그룹(Judson Group)의 특성과 작품성향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4쪽.

은 시간성과 죽은 것 같은 고요함을 포함한 작품이다. 그녀의 작품 중에 즉흥성이 많이 도입된 작품들로는 1964년의 〈Rulegame5〉로 동작과 언어의 즉흥성을 강조하였으며, 1969년의 〈Leaning Dute〉와 〈Yellowbelly〉가 그녀의 대표적 초기 작품이다.

트리샤 브라운의 무용사상은 전통적인 현대무용에 벗어나기 위해 즉흥 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즉흥무용에 하나를 부여하고자 그것을 구조적 즉흥무용이라고 불렀는데 어떠한 소품이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함이 없이 내용만을 가지고 안무가를 시간과 공간에 위치시킨 작품이었다. 1963년 「Light fall」은 스티븐 팩스톤과의 듀엣을 위한 안무로 격렬한 접촉의 탐구에서 볼 수 있듯이 트리샤 브라운의 안무 사상은 무대의 요소들 중 무대 천정, 벽들도 무용을 위해서도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⁸.

이렇듯, 그녀는 표현공간을 통해서 동작과 무용언어를 창조하고자 하였고 무대의 화려함이나 걸치레적인 면을 배제하였다. 그리하여 무용수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신체적 영역 안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들에 기초하고 공간적 움직임 구성을 개발하려는 안무 성향을 볼 수 있다. 무용 작품에 있어서 동작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었고 단순히 즐거움을 주기 보다는 관찰과 사고를 위하여 억지로 만들지 않은 움직임으로 일상적인 동작을 다양한 공간 안에서 포함시킴으로 무용의 경계를 넓혀나갔다.

1960년대 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1968년에 공연된 〈Equipment Piece〉가 있다. 이는 밧줄, 도르래, 케이블, 암벽등반 장비, 나무, 못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외부 보조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보여 지는 환상을 창조하여 힘과 중력에 대항하였으며 외부 매체의 가능성을 안무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의 형태를 만든 트리샤 브라운의 진보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1960년대 그녀의 무용 활동은 문화적 동요시기였던 반문화적 경향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다 지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가지고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들로부터 축소한 엄중한 형식의 방법론적인 실험을 시도한 시기이다⁹.

⁸ 마승연, 「Trisha Brown 작품에 나타난 표현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쪽.

트리샤 브라운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7년 동안의 저드슨 댄스 시어터의 활동 후에 스티븐 팩스톤, 고든 데이비드(Gordon David), 낸시 루이스(Nancy Lewis) 등과 함께 그랜드 유니온 무용단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트리샤 브라운 댄스컴퍼니(Trisha Brown Dance Company)라는 자신의 무용단을 창단하여 독립된 무용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대표적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1970)은 뉴욕의 휘트니 박물관에서 공연되었는데, 특별한 동작들의 특징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위와 구조사이와의 관계 또 다른 시선을 통해 관객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무용의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했다.

1976년 그녀는 자신의 무용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으로 남는 「Line Up」을 안무하였다. 이는 오늘날 트리샤 브라운이 추구하고 있는 파격적이며 거장다운 춤 세계로 옮겨가는 과도적 작품의 성격이라 할 수 있고, 그녀의 작품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⁹.

1980년대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으로 극장으로의 복귀는 극장주의에 대한 굴복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통한 재창조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특징이 강조된 1983년 작품 〈Set and Reset〉는 반투명 세트를 고안해 관객들이 무대 위 무용수들과 무대 뒤에서의 모습도 계속 보게 하였다. 이 작품에서 트리샤 브라운은 세트 뒤까지도 관객의 가시권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작품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기존의 극장 내에서 전위적인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였다.

트리샤 브라운의 군무는 일반적인 방법을 고수하지 않는다. 무용수들은 언제나 서로의 동작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하며 유기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무용수는 공연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종의 무대장치라 요소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연예술의 3대 구성요소인 공연자, 무대, 관객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이들 요소

⁹ 김지영, 「Trisha Brown의 안무성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8쪽.

¹⁰ 박은희, 「초기 포스트 모던댄스의 퍼포먼스적 특성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72쪽.

간의 상호 증척성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 역시 무대의 전위적 재창조를 시도한 작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1990년대 트리샤 브라운은 안무스타일에서 춤과 음악과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여 고전음악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게 된다. 1995년 7월 링컨센터에서 공연된 〈M. O〉는 바하의 음악 〈Musikalische Opfer〉에 맞추어 충실하게 시각적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실린 작품이다¹¹.

트리샤 브라운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급진적인 공간 구성을 재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무대의 전위적 재창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무대의 세트 뒤까지도 관객이 볼 수 없는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작품의 몰입도 및 이해도를 높이고 기존의 극장 내에서 전위적인 또 다른 안무 양식의 공간을 창출하였다. 작품의 전개에 있어서 대화나 스토리를 피하고 정서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도록 공간의 사용에 있어 일방적인 군무의 방법을 고수하지 않았다. 서로의 움직임을 일정한 규칙 내에서 따라하며 계속적으로 어긋나듯 불협화음적인 전개를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는 무용수는 공연자로서 일종의 무대 장치나 요소들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창작하도록 작품의 공간 영역을 확대시켰다.

트리샤 브라운은 독특하고 신선한 안무적 구성과 화려한 경력으로 그녀의 무용단은 현대무용계의 입지를 굳혀가며 다양한 지원과 국제적인 후원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의 서울 국제 공연예술제에 참가하여 1998년에 초연된 〈Canto Pianto〉와 〈Present〉, 〈Tense Groove and Countermove〉를 공연하였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브라운의 형식적인 극장 공연을 탈피하여 극장 밖에서 시도한 실험적 공연과 무대의 제한된 공간을 타 예술과 협력하여 무용의 세계를 확대시켜 나갔던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 활동과 안무에서 나타나 있는 작품분석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¹¹ 김지영, 「Trisha Brown의 안무성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1쪽.

3)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작품 분석

본 장에서는 자넷 애드헤드(Janet Adshead)의 『무용 분석의 이론과 실제 (Dance Analysis: Theory and practice)』에 제시된 무용분석의 4단계 중, 1단계: 무용구성요소, 2단계: 무용의 형태, 3단계: 무용의 해석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무용의 평가로는 작품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넷 애드헤드 4단계: 무용의 평가 대신 이합 핫산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활용하여 작품에서 나타난 브라운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탐구하여 분석하였다.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1970)

초 연	1970년 4월 18일
안 무	트리샤 브라운
음 악	주위의 소음
의 상	외출복
조 명	없음
작품길이	변수
무 용 수	Joseph Schlichter (1)



출처 : www.google.co.kr, (검색일: 2016. 04. 15)

| 그림 1 | Trisha Brown,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 표 1 |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제1단계, 무용구성요소분석

무용구성요소	
움직임	공간적 요소 건물 벽면
	역동적 요소 느린 걸음으로 건물 위에서 아래로 수평적으로 이동
무용수	남자무용수 한명
시각적 배경 및 환경	야외에서 공연 되어서 주위 환경은 자연광 속에서 이루어짐
청각적 요소	음악은 없으며 주위의 소음이 의도적으로 공연에 추가

| 표 2 |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제2단계, 무용형태분석

무용의 형태		
구성요소들의 관계	공간적요소와 동적요소들의 관계	한가지의 움직임 걸기로 동일한 속도로 반복
	인원수, 성별비율, 역할에 있어서 무용수들의 관계	한명의 남자무용수로 벽을 타고 내려오는 역할
	시각적 배경, 환경 요소들의 관계	야외 건물에서 공연되어지므로 주위 자연광 조명
	청각적 요소들의 관계	주위의 소음이 의도적으로 공연에 추가 됨
정지 상태에서의 관계	건물 벽면을 땅과 수평적으로 걸어 내려옴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관계	작품의 시작과 끝으로 건물 벽면을 일직선으로 걸어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함	
일정순간과 직선적 발전사이의 관계	건물의 벽면을 일직선으로 내려옴	
주요관계들	무용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물 벽면으로부터 땅과 수평적으로 걸어 내려오며 마치 무용수가 중력을 저항하듯 걸어 내려올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음악은 없으며 주위의 소음이 의도적으로 공연에 추가 되었고 조명 또한 야외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자연광이 조명이 되었다.	

| 표 3 | 〈Man Walking Down the Side a Building〉 제3단계, 무용의 해석

무용의 해석	
사회 문화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의 발달과 대량생산 경제의 시작으로 미국은 많은 변화가 새롭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무용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의 전통을 거부하는 반문화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존 추구해 왔던 예술을 왜곡시키고 부정하였고 무용에서도 역시 과거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실험정신을 강조하면서 전위적 형상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였다.
상황	“설치무용”으로 특별한 동작의 테크닉을 보여주기보다는 걷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에 초점
무용장르	머스 커닝햄과 같이 공연장소를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에서 시도하며 다양한 무대 소재를 선택하므로 장르는 현대무용
주제	순수하게 건물 위를 걸어 내려오는 움직임 자체에 집중
의미	1970년대 브라운의 무용 활동은 문화적 동요의 시기였던 반문화적 성향의 운동인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았다. 표현주의 탈피하여 야외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설치무용”으로 특별한 동작의 테크닉을 보여주기보다는 순수하게 걷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중력을 탐구하며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

| 표 4 |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분석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분석	
불합리성	무용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물 벽면으로부터 땅과 수평적으로 걸어 내려오며 마치 무용수가 중력을 저항하듯 걸어 내려올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킴
재현 불가능성	전통적인 무대가 아닌 건물 벽면을 걸어 내려오는 형식으로 기존의 무대형식을 거부하며 걸음걸이의 새로운 재현을 추구
행위와 참여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에 초점을 둠
보편내재성	건물벽면을 수평적으로 걸어 내려오는 움직임과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과 무용수와 관객의 거리가 좁혀지므로 상호작용, 의사소통과 같은 개념에 초점

3. 결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발전하였다. 미국 예술계에 기존의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되면서 실험의식이 강한 전위적 예술성향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특히 무용에 있어서 1960년대 이전까지의 표현주의 현대무용으로부터 저항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포스트모던 댄스가 점점 발전되면서 대중문화와 흡수되거나 대립되면서 발전되고 있으며 무용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고 현대무용의 규칙을 거부함으로써 무용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트리샤 브라운의 대표적 작품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을 자넷 애드워드『무용 분석의 이론과 실제』에 제시된 무용분석의 4단계 중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만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브라운의 안무성향을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 중점을 두어 이합 핫산 이론으로 브라운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분석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포스트모던 댄스를 이끈 트리샤 브라운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사회적 흐름을 무용작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움직임 자체의 표현과 순수한 움직임을 위한 무용을 강조하였다. “설치무용”으로 특별한 동작의 테크닉을 보여주기보다는 순수하게 걷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과 구조사이와의 관계,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 그리고 기존의 무용수와의 중력 관계의 탐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합 핫산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작품의 특성들은 불합리성, 재현불가능성, 행위와 참여, 보편내재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현대무용은 이사도라 던컨에서 마사그레이엄과 트리샤 브라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포스트 모던댄스가 발전되어왔다. 미국의 현대무용가들은 신체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체표현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움직임으로 인해 어떠한 감정표현과 개인의 감성이 배제되어 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일상 움직임에서 벗어나 극장으로 돌아오면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후까지 브라운의 작품은 느슨한 구조, 즉흥

적 동작이 특징을 이루었다. 작품 안에서의 즉흥적인 요소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보다 더 자유롭게 행해졌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안무가들은 무용형태를 분석하지 않고 공연의 매개수단을 재 실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안무가들은 저드슨 그룹을 통해 배출되었고 그 중 대표적 안무가 트리샤 브라운은 작품에서 일상적인 행동을 무용으로 재창조하고 탁월한 공간사용과 실험적인 안무형태를 형성시켜 무용을 가치 있는 예술로서 각인시킨 안무가이다.

트리샤 브라운은 저드슨 댄스 시어터 초기 멤버로 그리고 본인의 무용단 활동을 통해 40년간 현대무용의 선두자리를 지켜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온 작품 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안무 형식은 다시 무용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빛어난 즉흥무용, 장르 간 협업을 통한 융합 공연을 브라운은 작업을 통해 더 구체적인 안무 형식으로 안착 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분석을 통해 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날 현대무용의 움직임과 안무형태에 본질적인 무용예술의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에드워드, J., 『무용 분석의 이론과 실제』, 신상미 역, 현대미학사, 1996
이합 핫산, 『포스트모더니즘 개론』, 정정호 역, 한신문화사, 1991

논문

- 김다정,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존 듀이의 경험 예술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김지영, 「Trisha Brown의 안무성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마승연, 「Trisha Brown 작품에 나타난 표현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기범, 「저드슨 그룹(Judson Group)의 특성과 작품성향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은희, 「초기 포스트 모던댄스의 퍼포먼스적 특성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손소영,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의 작품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정은심, 「1960년대 초기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의 안무실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진숙, 「포스트 모던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tmodern dance」,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최신영,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표현양식을 활용한 미술교육방법 연구: 패스티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학과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기타

트리샤브라운댄스컴퍼니 홈페이지 <http://www.trishabrowncompany.org/>

Abstract

A study of Postmodernism represented in
〈Man Walking Down the Side of a Building〉
by Trisha Brown

KIM, Mihee

Culture Group Kiho

Researcher

Arts have changed continuously reflecting the times with the political atmosphere and social systems.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big changes have occurred since World War II, antihistorical tendencies rejecting modern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have come to appear in culture and arts as well.

With these social changes, radical, avant-garde and artistic tendencies with strong experimental spirits, which rejected modernism took place especially in American dancing world. Trends of improvised elements and experimental trials were dominated discovering expressions of new movements in intentions and expressions of 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choreographic forms of modern dance until today by exploring chore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is postmodernism.

To examine post-modernist inclinations in works, Trisha Brown who led American post-modern dance stressed dance for expressions of movements in themselves and pure movements by actively accepting into dance works American social flows which played a major role in postmodernism starting from 1960s. American modern dancers considered body in itself as important one and any emotional expressions and individual sensitivity is excluded as their physical expressions are factual, realistic, and due to their movements. They imprinted dance as valuable

art by recreating ordinary behaviors into dance, using space excellently and forming experimental dance shap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rough analyzing brown's works, we proposed a new direction getting out of limits of arts and provided a direction of essential dance art to movements of modern dance and choreographic shapes.

KeyWords

Postmodernism, Post-Modern Dance, Trisha Brown, Ihab Hassan
